

고용노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안전보건문화 확산 협약 체결

- 안전보건 메시지를 지속 전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문화를 확산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회 전반에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 이하 ‘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 이하 ‘보건협회’)와 5.17.(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올해 전국 39개 지역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꾸려 국민적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안전협회와 보건협회도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보건문화를 전파하는 일에 함께하기로 했다. 전국의 소속기관 및 관련 사업장에 적합한 메시지, 이미지 등을 담은 안전보건문화 슬로건을 개발·제작(안전보건 스티커 50만장 등)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안내 배포한다. 또한 협회 주관 안전보건 교육 시에도 영상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문화 의식 향상에 힘을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안전협회와 보건협회가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라며, “이번 협약은 안전보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양 협회의 첫걸음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임1 업무 협약식 개요
불임2 장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TF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804)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박완근 (044-202-8990) 이승주 (044-202-8991)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부-안전협회-보건협회 업무 협약식 개요

□ 행사일정

- 일시/장소 : '23. 5. 17.(수) 14:00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 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TF 팀장, 로드맵 이행 TF 서기관 등
 -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안전총괄이사
 -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경영총괄이사

【 주요내용 】

- 협회는 소속회원사 및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메시지, 이미지 등을 담은 안전보건문화 슬로건 등을 개발·제작
- 고용노동부는 협회에서 개발·제작한 안전보건문화 슬로건을 사업장 지도시 안내·배포하고, 슬로건 시안 개발 등을 지원

□ 세부 일정

※ 행사전체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10	'10	▶ 행사 개요 및 참석자 소개	*(사회) 로드맵 이행TF 박완근 서기관
14:10~14:20	'10	▶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협회장, 보건협회장)	
14:20~14:30	'10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오늘 우리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하고자
안전·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양 협회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종선 회장님과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아무리 촘촘하게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법과 제도의 개선, 정부의 지도·점검도 응당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의식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 사회구성원 각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안전한 행동이 습관처럼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직 우리의 안전보건 의식과 사업장의 안전보건문화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를 한 번에 강제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안전과 보건의 가치를 담은 메시지가 꾸준히 전달되고 널리 확산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잠재의식이 변화되고 안전과 보건의 가치가 체화되어 자연스레 행동의 변화를 끌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협약식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 정부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경시 문화를 개선하고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39개 지역에서 800여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 안전문화 캠페인, 지역별 행사, 업종별 결의대회, 기업과 협업한 안전 홍보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활동에 더해, 양 협회가 자체 자원을 동원하여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일터에 안전보건 문화가 더욱 튼튼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 이번 협약식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양 협회의 첫걸음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